

# 광주·전남 저축銀 “이젠 내실경영”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 6곳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축은행들은 정부로부터 ‘자산건전성’을 인정받은 만큼, 영업망 확장과 내실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금자들은 평소와 다른 동향을 보였다. 토마토저축은행 등 업계 2위 수준의 대형사가 퇴출명단에 오르자 퇴출명단에 없더라도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고객들의 동요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지역 저축은행 업계는 긴장감을 덜어낸 하루였다.

동양저축은행 관계자는 “불신감으로 인해 오전부터 예금을 빼내려는 고객이 몰려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고객들은 큰 변화없이 창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 대한·무등 등 6곳 퇴출대상 제외 안도

### 예금자 동요 없어...영업망 확장 박차

골든브릿지 저축은행 관계자도 “퇴출 발표 직후라 하루종일 업계 동향을 살폈지만 지역 예금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 일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센트럴저축은행이 25.29%, 대한 9.02%, 스마트 8.32% (2011년 6월 말 기준), 동양 8.19%, 무등 6.95%(지난 1월 증자 후 8.41%), 골든브릿지 5.97%로 금융위가 제시한 5%의 BIS 비율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영업을 정지시킨

7개 저축은행 외에 아직 경영정상화를 약속받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6개 저축은행에 지역 저축은행의 포함 가능성은 극히 적어보인다. 무등과 동양, 스마트는 최근 주인이 바뀌면서 사채 출연과 증자 등을 통해 건실함을 증명했고, 대한, 센트럴은 BIS 비율이 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5.97%로 BIS 비율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골든브릿지는 증권사 등을 계열사로 갖추고 있어 자금유동 등에 있어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저축은행 105곳 중 15%(16곳)의 영업을 정지할

정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감행한 만큼,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예금자들 안심시켰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경영정상화를 정부에게 약속한 6개 저축은행이 자칫 자구책에 실패할 경우, 다시 영업정지가 되면서 저축은행 불신사태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당분간 ‘인구’(人口)에 오르내릴 저축은행 관련 사태는 시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개월에 걸쳐 유례없는 진단과 감사를 걸쳐 구조조정을 했으니 살아남은 저축은행은 건전한 경영상태를 확신해도 된다”며 “수신기관이 구축돼 있는 만큼 새상품 개발과 시장개척으로 지역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저축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xian@kwangju.co.kr



“가을 채미 니트로 하세요”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 가을패션을 위한 니트 의류를 선보였다. 한 고객이 3층 여성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은행 가계대출 4000억 줄었다

## 대출 제한 여파...기업 대출은 1조4억 늘어

시중은행들이 가계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큰 폭 감소했다.

일부 은행이 대기업 대출에 치중한 채 실수요 여부와 무관하게 전방위로 가계 대출을 줄이고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현재 276조6084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073억원 줄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작년 말 264조8220억원에서 1월 말 4740억원 줄었지만, 이후 지난달 말까지 매달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달 들어 가계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하순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자제토록 권고한 이후 은행들이 앞다투어 가계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 등 비실수요 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8조6855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617억원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이 이달들어 1900억원 급감하는 등 실수요 대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단대출은 국민은행이 44억원, 하나은행이 8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93조9682억원으로 39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소폭 늘었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9억원과 182억원 줄었다.

은행들이 가계 대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대출 영업을 하면서 대기업대출은 큰 폭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8조9천639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4억원(1.7%) 늘었다. 6월말 이후 이달 중순까지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4조2천609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9조31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5천8796억원(0.3%) 늘어나 증가율이 대기업 대출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 어음 부도를 최저 신설 법인수 감소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이 7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은 0.01%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1월 0.01% 이후 최저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05%로 전월 0.014%보다 떨어졌다. 지방은 0.03%로 전월과 같았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부도업체 수는 전월보다 7개 늘어난 103개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개, 건설업이 1개 늘었고, 서비스업은 6개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월과 같고 지방은 7개 늘었다.

신설법인 수는 5천126개로 전월보다 513개 줄었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75.4배로 전월 84.2배보다 떨어졌다.

/연합뉴스

## “광주시·구청, 우수 특허품 구매 제로”

### 민주당 김재균 의원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우수특허제품의 보급을 위해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우선 구매 추천제도를 의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 을)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 우선 구매추천 운

영실적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구청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청이 추천한 우수특허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1개의 지식산업센터와 광산구와 남구 등 2곳은 지식산업도시로 선정돼 지식재산분야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관이 보여 준 실적이야 실망감이 더욱 크다”라며 “광주시

와 5개 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관은 우선 구매추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현행처럼 해당 업체에 공문한 장 보내는 수동적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활을 걸고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 납품실적이 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원일기자 cki@

## 광주 농산물 값 전국 2위

광주의 농산물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영록(민주당) 의원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쌀과 배추, 한우등심, 삼겹살,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올해(1~8월) 전국 12개 지역 평균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물오징어(3315

원)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등 10개 품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울산에 이어 12개 지역 중 두번째로 물가가 높았다.

품목별로 광주지역이 12개 지역 평균보다 비싼 농수축산물은 쌀 20kg(4만4081원), 감자 1kg(3258원),배추 1포기(3182원), 무 1개(2369원), 깻마늘 1kg(6664원), 양파 1kg(1721

원), 대파 1kg(3045원), 사과 10개(3만6원), 고등어 1마리(4460원), 물오징어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가격이 특히 비쌌다.

한우등심 500g(2만8320원), 삼겹살 500g(1만182원), 닭고기 1kg(6168원)은 평균 가격보다 낮았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국적으로 30% 이상 가격차가 발생했다”며 “기본적으로 유통구조 왜곡과 지역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xian@kwangju.co.kr

## 기업형 슈퍼마켓 1000개 돌파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가 1000개를 넘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달말 현재 전국의 SSM은 93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 형태의 SSM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홈플러스의

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가맹점 29곳, 47곳, 20곳을 모두 합치면 1026곳으로 증가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가맹점을 제외한 SSM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73곳, 2009년 690곳, 2010년 864곳 등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슈퍼가 280

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의 스프레스와 GS슈퍼가 각각 236개, 204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탐마트 76개, 김스마트 53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기타 62개 등이다.

지경부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기준으로 파악된 통계인 만큼 비회원사의 슈퍼마켓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264곳이 문을 열어 정점을 찍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 지난 5월 현재까지 58곳이 오픈했다.

/연합뉴스

# 제1회 영광 불갑산 상시화 축제

●기간: 9월 23일~25일(3일간) ●장소: 불갑사지구 관광단지 일원

영광군수정기회	광군의회	군의회
의장김양모	의장김양모	의장김양모

의회운영위원장	나승만
자치행정위원장	양순자
산업건설위원장	박영배
의원원장	강필구
의원원장	김봉환
의원원장	김봉환

영광종합병원	공립영광노인전문병원
이사장	조용호
병원장	오승균

영광기독교신하병원	
이사장	김경욱
기독교병원장	이만재